

# CIFC BiAnnual





# SHARING KOREA'S BEST FINANCIAL PRACTICES & EXPERIENCES



## CONTENTS

- 04 발간사
- 06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 06 설립배경 & 회원명부
  - 08 연혁
- 16 회원기관 동정 : 예금보험공사
- 18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보고
  - 20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 28 전문가 초청세미나 : 보험산업의 변화와 미래
  - 30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우즈베키스탄
  - 34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40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 42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 44 기고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 발간사

해외금융협력협회는 2013년 설립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발족 초기에 추구했던 특정 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이제 아세안 국가들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해외 파트너 국가들과 한국의 금융발전 모델을 공유하겠다는 주된 관심사는 핀테크, 금융포용 등 금융의 글로벌 트렌드와 관련된 국제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 발전은 21개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활동 중인 회원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 기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 이들 회원기관의 발전은 곧 한국의 금융발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글로벌 협력이 곧 한국의 글로벌 금융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협의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 금융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의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하는데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금융 트렌드는 핀테크의 발전입니다. 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간 경쟁,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금융기관·고객 간의 관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는 미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핀테크를 금융협력의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금융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금융의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디지털화 되는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혁신적 변화가 다양한 금융 주체들로부터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를 초월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혁신적 초국가적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금융의 혁신적 변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관점도 염두에 두고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 국가들뿐만 아니라 신북방정책과 연관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동, 유럽 지역의 국가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그동안 협력관계가 없었던 아르메니아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새로운 교류의 장을 개척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금융협력을 지향하는 협의회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로 8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협력포럼, 공무원 초청연수, 금융전문가 초청세미나,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 여러 유형의 체계적이고 의미있는 글로벌 금융협력 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 및 국가적 차이, 금융 환경적 차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45개 국가에서 900여 명의 금융전문가와 교류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룬 많은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다양하고 폭넓은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더 많은 국가들과 협력관계 구축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2월  
해외금융협력협회의 회장 **손상호**

“  
해외금융협력협회는  
한국 금융의 발전 경험과 지식 교류를 통해  
글로벌 금융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 설립배경 & 회원명부

#### 설립배경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의체입니다. 21개 회원기관들이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금융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 주요 협력기관들과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러한 회원기관들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협력국가의 정책당국 및 협력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매년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PARTNERS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21개의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 회원명부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 2013 주요사업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활동 시작

03	워크숍	제1회 해금협 워크숍
04	회의 연구사업	4월 정례회의 「우리나라 경제·금융발전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발주
05	회의	5월 정례회의
06	회의 초청연수 세미나	6월 정례회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07	회의	7월 정례회의
09	기타 초청연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초청 연수
10	회의 포럼	10월 정례회의 우즈베키스탄 보험산업 발전 포럼
11	회의 간담회	2013년 정기총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 간담회
12	강연 초청연수 세미나 워크숍	국제결제은행(BIS) 심일혁 박사 초청 강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제2회 해금협 워크숍

# 2014

## 주요사업

01	초청연수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02	회의	2014년 정기총회
03	회의	3월 정례회의
04	포럼 회의	제1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4월 정례회의
05	간담회 포럼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
06	회의 연구사업	6월 정례회의 「국내 금융의 성공적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발주
07	회의	7월 정례회의
08	초청연수 세미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한-태국 금융협력세미나
09	회의	9월 정례회의
10	초청연수 회의	덴마크 Danske Bank 부사장 초청 10월 정례회의
11	초청연수 세미나 회의	미얀마 Myanmar Insurance 초청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11월 정례회의
12	포럼 회의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12월 정례회의

# 2015

## 주요사업

01	회의	1월 정례회의
02	회의	2015년 정기총회
03	회의 초청연수	3월 정례회의 IDB Korea Insights Program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은행권 초청
04	회의	4월 정례회의 개최
05	연구사업 연구사업 간담회 간담회 포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주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주 금융위원장 주관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지원 제2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06	워크숍 강연 기타	제3회 해금협 워크숍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강연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07	간담회 회의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회사 해외진출 간담회 7월 정례회의
09	간담회 회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9월 정례회의
10	초청연수 세미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11	회의	11월 정례회의
12	포럼 회의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12월 정례회의

# 2016

## 주요사업

01	회의	1월 정례회의
02	간담회 회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2016년 정기총회
03	초청연수 워크숍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키뱅크(Aloqabank) 초청 제4회 해금협 워크숍
	강연 초청연수	WB 송도사무소 Sameer Goyal 초청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경제발전기획부, 건설부, 주택건설개발은행 초청
	세미나	미얀마 공무원 초청 주택금융세미나
04	회의	4월 정례회의
06	포럼 회의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6월 정례회의
07	초청연수 세미나 회의	미얀마 계획재무부 차관 초청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7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세미나 초청연수 세미나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기부 소속 공무원 초청 한-태국 금융협력세미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08	회의	9월 정례회의
09	회의	10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세미나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 한-이란 금융협력세미나
10	회의	11월 정례회의
11	포럼 회의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12월 정례회의

# 2017

## 주요사업

01	회의	부서장급 사전회의
02	회의	2017년 정기총회
03	회의	3월 정례회의
	강연	기획재정부 박충근 국장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방향'
	강연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모, 양은용 변호사 '동남아 주요국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04	회의	4월 정례회의
05	토론회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 · 해금협 공동 토론회
	공동연수 회의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협회 5월 정례회의
06	초청연수 세미나 세미나 간담회 회의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초청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6월 정례회의
	공동연수 포럼	신용보증기금 · IBK기업은행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07	기타	CIFC BiAnnual Vol. 1 발간
08	공동연수 회의	한국신용정보원 · NICE 평가정보 9월 정례회의
	포럼 워크숍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09	회의	10월 정례회의
	포럼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 엑스포
10	포럼 회의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11월 정례회의
11	포럼 회의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12월 정례회의
	공동연수	금융결제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 2018

## 주요사업

01	회의 워크숍	정기총회 사전회의 제4회 미안마 주택금융 워크숍
02	회의 기타	2018년 정기총회 CIFC BiAnnual Vol. 2 발간
03	회의 포럼	3월 정례회의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04	회의 기타	4월 정례회의 CIFC 2017 Annual Report 발간
05	세미나 회의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와의 협력방안 5월 정례회의
06	세미나 회의 공동연수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 6월 정례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예탁결제원
08	세미나 공동연수 회의 기타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강화 방안 검토 IBK기업은행 · 은행연합회 8월 정례회의 CIFC BiAnnual Vol. 3 발간
09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10	공동연수 회의	금융결제원 · NICE평가정보 10월 정례회의
11	공동연수 회의	신용정보원 · KCB 11월 정례회의
12	포럼 공동연수 회의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12월 정례회의

# 2019

## 주요사업

01	회의 공동연수	2019년 정기총회 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02	회의 기타	2월 정례회의 CIFC BiAnnual Vol. 4 발간
03	회의	3월 정례회의
04	세미나 회의 기타	아시아개발은행 소개와 협력방안 공유 4월 정례회의 CIFC 2018 Annual Report 발간
05	공동연수 회의 세미나	은행연합회 · 한국신용정보원 · IBK기업은행 5월 정례회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방안 검토
06	초청연수	아르메니아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07	공동연수 세미나 공동연수 세미나 회의	한국거래소 · 코스콤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 7월 정례회의
08	공동연수 기타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CIFC BiAnnual Vol. 5 발간
09	포럼 회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9월 정례회의
10	세미나 회의	보험산업의 변화와 미래 10월 정례회의
11	초청연수 공동연수 회의	우즈베키스탄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기술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11월 정례회의
12	포럼 회의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12월 정례회의



## 회원기관 동정



###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반기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 해금협)는 다양한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21개 회원사 및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해금협의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 세계 주요 예보기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1996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예보는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시 부실금융회사를 성공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등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사태까지 여러 위기시마다 국내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예보는 그동안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예금보험제도를 선진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보호 업권을 은행을 넘어 증권 및 보험업까지 확장하고,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보제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적인 예보제도를 운영하는 공사에 여러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연수 및 자문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예보는 2010년부터 예보제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몽골,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해외 예금보험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왔습니다. 일례로, 몽골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정부터 예보 설립 및 자문관 파견에 이르기까지 제도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예보와 함께 해왔습니다.

예보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예보는 2017년 글로벌 예보제도 연수프로그램인 「KDIC Global Training Program」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2개국 90여명의 해외 예보기구 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케이스스터디 및 참가자

발표, 토론 등 참여형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예보제도 운영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한국형 예보제도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보는 2002년 5월 스위스 바젤에서 전세계 예금보험기구가 모여 창설(총 115개 회원)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창립회원입니다. 협회 창립 이래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이사에 선임되어 IADI가 국제기준 제정기구(Standard-Setting Body)로서 조직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결정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보제도 관련 국제기준·지침을 정립하는데 참여하고, 관련 정책 개발·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예금보험한도, 위기대응관리 등 예보제도 관련 주요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예금보험제도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방식(P&A)을 주제로 한 연구실무위원회는 공사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예보는 지식공유사업 및 연수 노하우를 살려 IADI에서 진행되는 회원기구 대상 연수 및 기술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는 IADI 산하 21개 회원기구로 구성된 아태지역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향후 아태지역 회원기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역내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협력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현지금융협력포럼, 국제금융협력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 해금협 주관의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의 국제 네트워크 및 경험공유사업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금협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째 반기보고서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해금협과 회원기관 모두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 성 백

“ 전 세계 주요 예보기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9

하반기  
주요사업보고

CIFC BiAnnual Vol. 6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Indonesia-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금융위원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2019년 9월 10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금융위원회, 은행연, 금투, 생·손보, 여신협회 등 해금협 회원기관 60여 명을 포함한 한국 출장단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한국계 금융기관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현지 전 금융업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Digital Finance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의 개회사,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Ir. Nurhaida 부위원장의 환영사,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과장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Sukarela Batunanggar 디지털혁신 부문 상임위원은 포럼 발표세션에 앞서 주제발제를 했다. 포럼은 ① '핀테크의 발전과 은행산업의 미래' ② '보험 및 자본시장에서의 기술의 역할'이라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총 11명의 연사들이 발표에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Bapak Imansyah 국제협력 및 연구 부문 상임위원의 폐회사로 포럼이 종료되었다.



### 주제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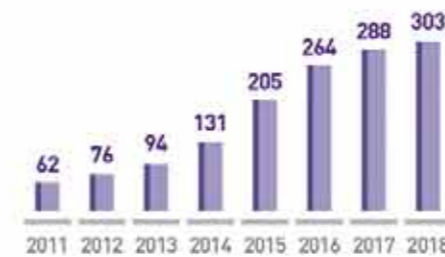


#### 핀테크와 디지털 전환

송현도 | 금융혁신과장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①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② 핀테크 관련 정책 추진방향 ③ 향후 도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핀테크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ATM, 폰뱅킹 등 기존 기술과 경영의 융합을 넘어 우리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시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역시 핀테크가 단순히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혁신의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포용적 금융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핀테크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빠른 속도로 핀테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약 300개의 핀테크 기업이 존재하며 비공식적으로는 약 500-600개 정도로 추정된다. 아래 금융부문별 핀테크 기업 분포도를 보면 지급결제 및 송금 관련 회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이낸싱 및 대출, 자산운용 등이 그 뒤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인슈어테크 관련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핀테크 기업 추이 (단위: 개)



금융부문별 핀테크 기업 분포도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핀테크 발전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6대 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중심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며, 이러한 에코시스템의 일환으로 핀테크 관련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또한, 규제 개선 강화 및 규제해소를 위한 노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Indonesia-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금융혁신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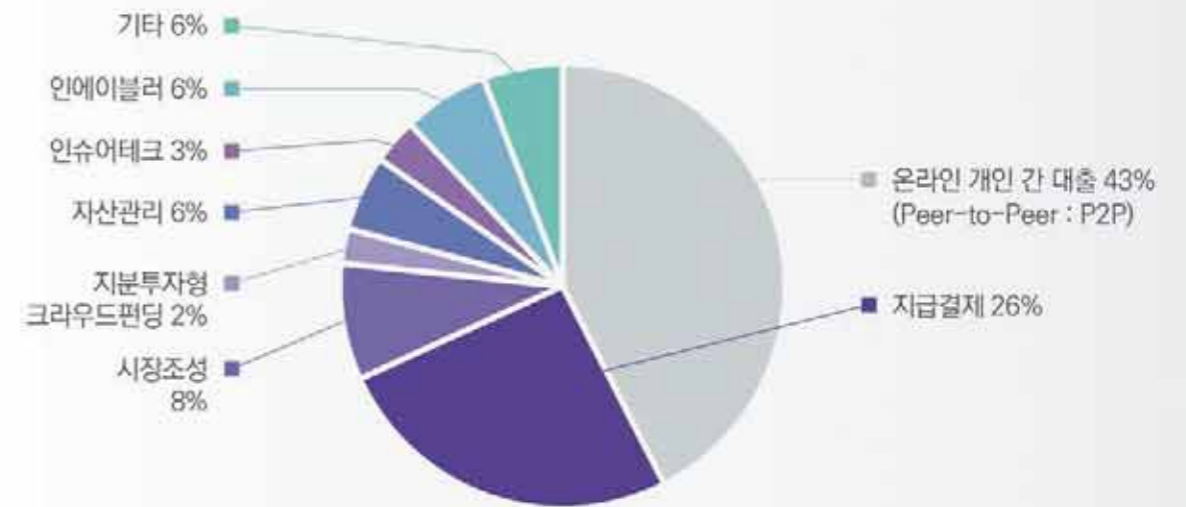
Sukarela Batunanggar | 디지털금융혁신 상임위원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Sukarela Batunanggar 상임위원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금융혁신, 핀테크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 핀테크 산업의 발전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금융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해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제한적이며 성인 인구 계좌보유율이 매우 낮고 소외된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이 많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인구수 세계 4위, 경제규모 16위 등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로 인도네시아 인구의 65.3%인 약 171만 명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금융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균형 잡힌 정책과 금융산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가 핵심적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금융 규제 전략을 아래 그림과 같이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행동강령 등을 구축하기 위해 원칙중심의 규제를 우선시 하고 선택적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이 책임 있고 포용적이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금융감독청이 설립한 디지털금융기술혁신센터인 Infinity 센터를 통해 이해당사자, 규제당국자, 민간 및 정부가 함께 모여 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거버넌스, 책임감, 공정성, 보안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질서를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교육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핀테크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약했다.



287 핀테크 기업

출처: Afttech & OJK, July 2019



P2P: 127개 등록 (OJK)



IDR 44.8조 대출



차용인: 974만 명



투자자: 498,824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디지털 금융 관련 연구,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② 은행과 비은행의 변화를 촉진하며 ③ 은행, 핀테크 기업, 마이크로파이낸스 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④ 주요 이해당사자,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Indonesia-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세션 1: 핀테크의 발전과 은행산업의 미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Bank BTPN Ongki Wanadjati Dana 대표, 신한금융그룹 조영서 본부장이 핀테크의 발전과 은행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 한국 은행산업의 디지털 혁신 현황

서정호 |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한국 은행산업의 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은행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 전국 어디에서나 ATM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성인이 은행계좌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은행산업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뱅킹의 1일 사용건수가 전년대비 25% 증가하는 등 은행 고객들의 디지털 채널 활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물리적인 영업지점들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차림 고객들의 이용 채널이 디지털화 되면서 은행들도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정호 센터장은 여러 디지털 혁신 사례 중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 송금 서비스, 일부 은행과 연계된 P2P 렌딩 상품, 블록체인가 기술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픈뱅킹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은행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은행과 핀테크의 협력이 더 강화되는 새로운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는 오픈뱅킹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 디지털 은행 - BTPN의 전환과정

Ongki Wanadjati Dana | 대표 | Bank BTPN

Ongki Wanadjati Dana 대표는 디지털 뱅킹의 필요성, Bank BTPN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이용자 1억 5천 명,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1억 4천여 명 등 점점 더 디지털화 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은행들 역시 기존 영업방식의 한계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화, 파괴적 기술,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등장, 마진 압박, 운영비용 및 위험비용 증가 등 여러 도전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또 은행별로 디지털화의 방식은 다르지만 은행들의 경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화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Bank BTPN은 삶을 간편하고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종합 라이프 금융관리 앱 "Jenius"를 개발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 지점을 방문하거나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송금 수수료를 없애고 자산관리를 해주는 등 소비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디지털 전환 과정 공유

조영서 | 본부장 | 신한금융그룹

조영서 본부장은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전환 과정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과 제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고객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뱅킹플랫폼에 적용하고 데이터, AI 등에 관한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완화에 맞춰서 IT 인프라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에는 오픈뱅킹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그랜드 퍼스널 파이낸스 플랫폼" 개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는 ①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신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디지털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며 ② 파괴적인 모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실제로 실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파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했다. 다음으로 핀테크와의 상생을 위해 신한핀처스랩 런칭 후 여러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신한핀처스랩 기업들은 대부분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50개 정도 개발 중에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한국 금융에 있어 혁신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세션 2: 보험산업과 자본시장에서의 기술의 역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험산업 및 자본시장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대해 보험개발원 박진호 상무, Central Asia Financial(Jagadiri) Reginald Hamdani 대표, 메리츠코린도보험 강형구 사장, 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원, 인도네시아 거래소 Inamo Djajadi 대표, NH코린도증권 민두하 법인장이 발표했다.



#### 인공지능 견적 시스템 AOS<sup>α</sup> 소개

박진호 | 상무 | 보험개발원

박진호 상무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수리비 견적시스템 "AOS<sup>α</sup>"를 소개하고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AOS는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의 약자로 수리비 청구를 하는 수리업계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등 양 입계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에는 정비공장 약 90% 및 공제조합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회사가 AO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1991년 DCS 버전을 시작으로 여러 개발단계를 거쳐 현재 인공지능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AOS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작업 효율성 및 정확성을 올리고 보험사기 등을 방지해 자동차보험료 상승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새로 개발중인 인공지능견적시스템 AOS<sup>α</sup>는 인공지능이 파손된 차량의 사진을 보고 인건비 및 부품가격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최종수리비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AOS<sup>α</sup>는 현재 파일럿 단계로 해당 시스템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진을 보고 사고유형을 파악해야 하며 나아가 부품에 대한 인식, 두 개 이상의 부품에 걸친 손상, 손상의 깊이, 복합손상도 등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모바일 AI, 부품인식 모델, 부품손상 인식 AI 모델 개발을 계획 중이며 외관의 손상에 대한 견적, 보험사기 등에도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도 인식을 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Indonesia-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인도네시아 보험산업과 디지털 전환

Reginald Hamdani | 대표 | Central Asia Financial(Jagadiri)

Reginald Hamdani 대표는 인도네시아 보험산업 소개 및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보험 침투도가 낮으면서도 보험밀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존 보험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비싼 보험료, 복잡한 상품구매방식 등의 문제요소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험산업이 더욱 성장하려면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각 기관들은 대블릿 사용을 통한 온라인 거래방식을 구축해야 하며 금융상품 비교사이트 등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팔던 상품들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IoT 기술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들을 통한 사용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술과 보험이 접목되면서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더 저렴하고 개인 맞춤형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과정이 더욱 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시장과 디지털 전환

강형구 | 사장 | 메리코린도보험

강형구 사장은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의 특징, 디지털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여러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며 완전경쟁시장이라고 설명했다. 76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약 10개의 대형보험사들이 시장의 54%를 장악 중이며 나머지 66개의 보험사들은 46% 되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임원 적격성 테스트, 사업보고 심층토론회 및 분기별 사업 보고서 제출 등 좋은 제도들을 통해 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임원의 수와 보험계리인, 구성해야 하는 여러 위원회 등 손해보험사 규모에 맞지 않는 제도도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디지털 전환 초기단계로 10개의 대형보험사들은 이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 중이며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판매가 활발해졌고 온라인 전업손해보험회사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핀테크 기업의 수가 160개 이상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산업 디지털 전환의 미래도 밝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보험사들은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노하우를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 디지털 혁신과 한국의 자본시장

연태훈 | 선임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혁신과 자본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자본시장은 빠르게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디지털 혁신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자본시장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으며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최근 디지털 혁신의 방법들은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며 기존의 채널을 단순히 디지털화 한다는 것을 벗어나 여러 업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굉장히 동적이고 다면성을 가진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근본적인 기술을 이용해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등의 영역들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핀테크 앱을 통해 양국의 시장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의 지면을 넓힐 수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제도적 협력인 교차상장이나 빈드 패스포트 등의 개방 정책의 완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혁신을 위한 협력

민두하 | 법인장 | NH코린도증권

민두하 법인장은 NH코린도증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 협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아세안 인접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자본시장 전반도 함께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시장이나 회사채시장도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기대했다. NH코린도증권은 2008년 인도네시아 진출 후 온라인 증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해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인도네시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나아가, 2017년부터 모바일 주식거래를 시작해 지역적인 제약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매개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곧 한국에 있는 자산운용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NH코린도증권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내에서 여러 방식으로 협력해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 전문가 초청세미나 : 보험산업의 변화와 미래

CIFC Invitational Seminar : The Changes Shaping the Fu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9년 10월 21일(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보험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삼정 KPMG 김세호 상무, 싱가포르 통화청 Ken Chua 사무관, Asia Aon Inpoint Andrew Hare 상무이사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인슈어테크 국내·외 현황**  
김세호 | 상무 | 삼정 KPMG

김세호 상무는 글로벌 인슈어테크 트렌드, 한국 인슈어테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산업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의 하나인 보험산업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핀테크의 성장에 있어 현재까지는 지급결제 영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슈어테크 역시 다른 영역들에 비해 평균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인슈어테크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보험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빅테크(BigTech) 및 이커머스,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 보험산업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했다. 미국의 경우 정통 보험사들이 머신러닝 같은 기술을 활용해 언더라이팅 등을 고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도입은 고위험군 예측에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기술 사용, 데이터 허브 구축 등 여러 혁신적인 변화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인슈어테크 관련 성장은 더디지만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기존 보험사와 스타트업들이 협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 등 금융당국의 노력을 통해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에코시스템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 보험사들과 핀테크 업체들 간의 네트워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보험산업의 핀테크 및 규제 샌드박스 현황**  
Ken Chua | 사무관 | 싱가포르 통화청

Ken Chua 사무관은 싱가포르의 인슈어테크 현황과 중앙은행이자 규제기관으로서 싱가포르 통화청이 시행중인 핀테크 관련 이니셔티브 및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이노베이션 랩을 출범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여러 기술을 활용하고 융합해 소비자 경험 개선 및 데이터 기반 상품 출시 등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 사이버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신뢰 기반 이니셔티브로 고객의 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정부가 구축한 인프라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유관 금융회사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National Digital Identity 및 MyInfo 등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싱가포르 통화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기관은 혁신적 기술이 가져오는 이점과 잠재적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위험의 사이즈에 비례해 도입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및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샌드박스의 틀 안에서 충분히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만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협업하여 기술도입을 위한 생산적 실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및 영업 노하우**  
Andrew Hare | 상무이사 | Asia Aon Inpoint

Andrew Hare 상무이사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및 영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현재 보험산업은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트렌드 및 시장 참여자들의 출현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여러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보험회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성장 가속화, 신규 고객 유치, 경쟁력 강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 새로운 인재 유입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또한,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은 시장 내 경쟁구조와 시장분포도를 분석하고 신규 고객 유치를 목표로 고객의 소비행동 및 소비 선호도를 분석하는 등 현지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현재의 규제환경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합병 진행 시, 기업 내부적으로는 합병 적합성 판단부터 인수할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수합병 후 회사 간 통합을 위한 경영구조 개편 등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기존의 고객과 주요 협력사와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이 보험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건전한 인수합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계적인 인수합병 전략과 혁신적인 조직문화와 열린 마인드를 갖춘다면 글로벌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우즈베키스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Uzbekistan

###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9년 11월 11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4박 5일간 해금협 회원기관의 금융인프라 발전 경험 전수 및 양국의 금융제도와 규제, 상호진출 협력 현황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소속 공무원 5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은 해금협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면담하고 한국신용정보원과 KDB산업은행을 방문해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는 2019년 11월 12일(화)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연수단과 금융위원회 및 해금협 21개 회원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의 요청으로 '한국의 금융정보 교육사례'와 '한국 은행산업의 핀테크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김경한 센터장이 개회사를, 금융위원회 이진수 과장이 환영사를 맡았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Nuritdinov Mukhitdin 선임경제학자, 금융투자협회 이명진 차장, 금융결제원 오상승 팀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 현황

Nuritdinov Mukhitdin Jaloliddin Ugli | 선임경제학자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Nuritdinov Mukhitdin 선임경제학자는 시장과 민간의 역할 강화 및 사회적 포용 제고를 통해 시장경제 전환 등을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포스트 카리모프 체제에 새로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신임 대통령은 경제개혁을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하고 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자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조치 효과 제고 및 통화정책 개선을 위한 대통령령안을 공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했다. Nuritdinov 선임경제학자는 아래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 단계를 설명했다.



나아가, 물가안정, 지급결제제도 및 은행제도 안정성 제고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우즈베키스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Uzbekistan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내방

####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은 2019년 11월 12일(화)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면담하여 부실채권 정리, 국유재산 관리·개발, 개인 신용회복 지원 등 국가 경제의 안전망으로서 공사 주요 역할에 대한 발표를 듣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현황 및 양기관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은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와 면담하여 정책모기지 공급, 유동화증권 발행, 주택금융 신용보증 공급, 주택연금보증 공급 등 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 상세히 전수받고 한국의 주택연금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 한국신용정보원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은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한국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신용위의 역할 및 한국의 신용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 전수받았다.



#### KDB산업은행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은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 KDB산업은행을 방문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과 미래 비전 및 전략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6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국제금융협력포럼(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해왔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해금협 회원기관의 해외협력사업 파트너기관(금융당국 또는 공공·민간)의 책임자급 인사를 3박 4일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외 금융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만찬 행사, 회원기관 방문,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추후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을 주제로 ①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과 한국의 전략 ② 은행 부문 금융혁신 방향 ③ 유럽의 미래금융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12월 10일(화) 포시즌스 호텔 광화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Tun Tun Naing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사무차관, Pierre Ferring 룩셈부르크 대사, Naoyuki Yoshino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장 등 해외 고위인사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파키스탄 주택금융공사, 라오스 예금보험공사 등 전세계 13개국에서 총 57명의 해외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방한하였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 코리아크레딧뷰로 강문호 사장 등을 비롯해 21개의 해금협 회원기관 관계자 및 여러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 개막식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영상 시연을 통해 협의회의 설립배경 및 구성, 발전과정과 주요사업 성과, 국제금융협력포럼의 의의와 역사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7년간의 해외협력사업 활동을 통해 구축한 전세계 900명이 넘는 금융당국자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홍보하며, 앞으로도 금융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교류를 계속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 개회사

손상호 | 의장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시작점은 디지털 혁신으로 그 혁신은 금융산업의 경쟁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며, 이는 곧 디지털 기술에 더 친화적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금융당국은 혁신을 위한 경쟁이 금융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규제의 기본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상충가능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 시대의 금융회사는 개방을 통해 외부와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외부 디지털 혁신을 받아들여면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위한 개방은 곧 외부 네트워크와의 협력이며 미래 디지털 금융 시대의 협력은 오늘과 같이 국경을 초월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손상호 의장은 제6회차를 맞이한 국제금융협력포럼이 그동안 다양한 금융 주체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국가, 금융발전 등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금융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오늘의 포럼도 미래 금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금융협력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6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환영사

손병두 |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금융분야를 포함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초연결사회가 도래했으며, 최근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해내고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출현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신산업·신시장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며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친화적 성장환경 조성, 디지털 금융혁신 인프라 확대 및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통해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포럼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성공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축사

Tun Tun Naing | 사무차관 |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Tun Tun Naing 사무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전 세계의 주요 금융감독 및 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디지털 혁신이 가져오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미리 테스트하고 이에 걸맞은 규제 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의지, ICT 인프라의 구축, 경영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미얀마 정부는 2011년 시장개방 이후 통신 및 금융환경 개선 부문에서 많은 개혁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중 금융환경 개선 부문의 개혁과제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다. 은행산업의 경우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외국계 은행에 대한 기업 및 소매금융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보험산업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 인가 승인이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한국, 일본, 대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MOU에 기반한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 뱅킹의 개발 및 상용화와 소매대출 활성화를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포용 부문에 있어서는 UNDP, USCDF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농업,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 저소득층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포럼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금융산업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 기조연설

Open Innovation, the Way to a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Naoyuki Yoshino | 소장 |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Naoyuki Yoshino 소장은 금융기술이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책당국이 관심 가져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은행의 업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역 및 국가간 경계 없이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술의 발전이 금융포용 확대와 인프라를 포함한 국내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금융 위기 시 국가간 자본유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 및 국가간 협력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대출이 편리해짐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채무과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가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핀테크의 영역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어 나갈수록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 또한 중요해지며, 정책당국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긴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 입권과 정책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대국 등 다양한 국가별 사례를 예로 들며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및 가계부채 과잉현상 등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파생된 여러 이슈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당국자들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젠지 자신의 연구 경험과 자문이 필요하면 기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기조연설

The Future of European Financial Services  
Nicolas Mackel | 대표 | Luxembourg for Finance

Nicolas Mackel 대표는 유럽 금융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금융서비스의 아마존화(Amazonisation)라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그가 속해있는 Luxembourg for Finance의 배경인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정책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금융서비스 허브 중 하나로서 유럽 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금융서비스산업의 기술선진화 부문에서 주요 강국인 중국과 미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 유럽이 다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아마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존화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의 기술적 혁신을 이끌고 있는 아마존이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유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는 금융산업에도 금융서비스의 플랫폼화를 통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자산관리 부문과, 모바일 전자상거래 및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지급결제 부문, 그리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고객이 직접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보험 부문 등에서 금융서비스의 플랫폼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우 고객의 기대와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금융회사들 그리고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통합된 금융 단일시장의 조화로운 프레임워크가 모두 한데 어우러져 기술 혁신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플랫폼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6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발표



#### Fintech Industry: Where We Are & Where We Should Be Headed

장경운 | 핀테크혁신실장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장경운 핀테크혁신실장은 최근의 주요 핀테크 동향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 그리고 감독당국이 그리는 바람직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주요 핀테크 동향으로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의 증가세로 증명되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 글로벌 거대 IT 기업과 소셜미디어 기업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로 인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 그리고 '임팩트 핀테크'라고도 불리는 사회적 혁신 금융의 부상 등을 꼽았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2월 핀테크 지원 전담 조직인 핀테크혁신실을 설치하여 정부 그리고 금융업계와 함께 핀테크, 레그테크, 셉테크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람직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감독당국 그리고 시장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기술발전과 이익추구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높이는 사람중심적 핀테크 혁신을 지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 더 나아가 한국과 해외 핀테크 기업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고 금융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통한 국제 교류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Bank, Credit & Loans - Open Banking, Open API and Regulatory Challenges

서정호 |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오픈뱅킹의 기본 개념과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전제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는 서비스다. 오픈뱅킹 정책은 공통적으로 오픈 API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스스로의 정보 통제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싱글 API 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를 점차적으로 늘려 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중앙은행 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픈뱅킹 정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자금융 수수료 감소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약화, 주기별 은행 선점을 위한 은행간 경쟁 가열,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 방식의 증가, 금융회사와 고객의 접점 변화, 오픈뱅킹 시스템 참여자와 서비스 영역의 확대, 외국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금융의 플랫폼화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 제일 먼저 싱글 플랫폼 사용에 대한 안정성 및 안전성 관리를 언급하고 나아가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및 수익성 약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감독기관으로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을 시장으로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경쟁의 규칙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기존의 금융 규제의 틀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손실과 정보도용,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리스크에 주의하면서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의 고객정보 관리 부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Fintech in Switzerland: the Driving Forces of Success

Marc Rudolf | 대표 | Greater Zurich Area AG

Marc Rudolf 대표는 스위스의 핀테크 현황과 성공 동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스위스는 안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지리적 이점, 경제수준과 기술력 부문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유망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UBS와 Credit Suisse 등 Forbes가 선정한 500대 은행 중 두 곳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 등이 거점을 둔 스위스에서 핀테크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다음을 꼽았다. 스위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핀테크 사업자들이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도 최대 CHF 1억 달러까지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는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정적인 스위스 통화와 스위스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 등도 핀테크 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위스 내 용이한 연구개발 인프라 접근성과 유사 핀테크 기업간 협업 가능성 등도 주요 성공 동력으로 꼽았다. 다만, 외국계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아직 자금조달 및 은행업무 부문에 있어 다소 제약이 존재하는 점과 스위스 내 외국인 채용관련 규제가 복잡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위스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해법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Cooperation Project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2019년 동아시아보험회의(EAIC) 집행위원회 공동 개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8월 29일(목)부터 8월 30일(금)까지 1박 2일간 '2019 동아시아보험회의(East Asian Insurance Congress) 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동아시아 12개국 간의 보험관련 정보교환, 보험현안 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며, 2019년도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동아시아 12개국(한국, 브루나이,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보험사, 보험협회 CEO 및 임원, 보험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술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태국 신용보증공사 및 과학기술개발원 초청세미나 공동 개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11월 24일(일)부터 11월 26일(화)까지 2박 3일간 '태국 신용보증공사 및 과학기술개발원 초청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공동연수는 한국 중소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주관 하에 11월 25일(월) 개최된 2019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에 태국 신용보증공사와 과학기술개발원 담당자 7명을 초청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양국의 글로벌 혁신기업 지원 및 기술평가시스템 노하우 전수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증제도 및 기술평가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데 기여했다.



##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 정례회의

09

#### 9월 정례회의

일시	2019년 9월 23일(금) 10:30~11:3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16기관 (21명)

해금협 홍보 플랫폼 개선작업, CIFC BiAnnual Report Vol. 5, 보험업권 전문가 초청세미나, 우즈베키스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등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일정을 진단 및 안내하기 위해 9월 정례회의 개최

10

#### 10월 정례회의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15:00~16: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16기관 (22명)

우즈베키스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12월 정례회의 및 송년회 등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일정과 기타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0월 정례회의 개최

11

#### 11월 정례회의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15:00~16: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18기관 (26명)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2020년도 해금협 사업관련 의견수렴, 12월 정례회의 및 송년회 등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기타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1월 정례회의 개최

12

#### 12월 정례회의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17:30~20: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10기관 (24명)

2020년도 1월 정기총회 안건과 2020년도 해금협 사업계획, 사업 대상국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19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12월 정례회의 개최

### 기타활동

05

####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일시	2019년 5월 16일(목) 14:00~15:30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분야 대외협력 업무 캘린더 업데이트 상황 공유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금융분야 대외협력협의회 회의를 개최

11

####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12:00~13:30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수원 등

금융분야 대외협력 업무 캘린더 업데이트 상황 공유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금융분야 대외협력협의회 회의를 개최

# 기고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장경운 | 핀테크혁신심장 | 금융감독원

## 1. 들어가는 말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해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는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삶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대출, 투자, 보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물론 기존 금융기관과 대규모 IT기업이 핀테크 산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자간 경쟁과 협업도 가속화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편의성,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을 지나치게 왜곡시키거나 소비자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 2. 글로벌 핀테크 산업 동향

최근 글로벌 핀테크 산업 동향을 보면 첫째, 질적·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는 투자규모로 증명이 되는데,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의 경우 2016년 70조 원에서 2018년 123조 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투자의 특징을 보면,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 대상 인수·합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초기단계의 스타트업보다 어느 정도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핀테크 기업은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종합 금융플랫폼 사업자로 변신 중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저금결제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는 최근 유럽은행 인가를 취득하고 은행, 보험, 펀드 판매를 시작했고,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인 웰스프론트(Wealthfront)는 대학 학자금에 관한 저축 프로그램 및 온라인 대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는 2019.2월 기준 총

291개사로 전년대비 70여 개가 증가하였고 전체 국내 핀테크 기업수는 500여 개로 추산된다. 또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등의 경우 청년층 고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은행, 투자, 보험서비스를 접목하면서 종합 금융플랫폼 사업자로의 변신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아직 인수·합병보다는 벤처캐피탈이나 금융기관 등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도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BigTech, 즉 미국의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과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거대 IT 및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금결제, 대출, 보험 등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고, 높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그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대형 IT 플랫폼 기업이 금융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금융산업 내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금융, IT, 통신, 전자상거래가 다양하게 엮여가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어떻게 시장지배력의 싹틔임 없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인지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셋째,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으로 보다 크고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전개됨에 따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망 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인 몬조(Monzo)는 저금결제 핀테크 기업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와 협업하여 해외송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JP 모간(JP Morgan)은 P2P대출 사업자인 온덱(OnDeck)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대상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저금결제,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오픈뱅킹이 본격화되면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협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기관은 그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자체 핀테크 인큐베이터를 운영해 왔는데, 예전에는 단순히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창출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혁신금융의 부상도 주목된다. 임팩트 핀테크라고도 불리는 사회적 혁신금융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관심 증대와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금융기관의 니즈 확대가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연결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아스피레이션(Aspiration)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로보어드바이저 모티프(Motif)는 임팩트 투자상품을 구성하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편입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역 주민의 대체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P2P대출 서비스(루트에너지), 지역 경제에서의 기업 평판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안적 신용평가 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되고 있다. 아직 국내는 민간부문의 활동이 해외에 비해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환경, 사회 문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는 임팩트 핀테크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금융포용 등과 맞물려 감독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분야임은 분명하다.

## 3.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는 2018년 2월 핀테크 지원 전담조직인 핀테크혁신실(舊 핀테크지원실)의 설치를 계기로 핀테크 혁신 지원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핀테크혁신실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금융규제 샌

드박스 운영, P2P대출 플랫폼 감독,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 기술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의 규제준수 효율화를 지원하는 레그테크 및 금융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싹테크 등 핀테크를 활용한 규제·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그리고 금융업계와 함께 핀테크-레그테크-싹테크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사항들을 몇가지 소개한다.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시행으로 한국도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은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지정받은 기간 내에는 특례(적용 예외)를 인정 받은 금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감독당국이 샌드박스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핀테크 생태계 구축이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건전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체제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직성이 다소 심한 편인데, 샌드박스는 기존의 금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규제 인프라 혁신, 즉 포지티브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이 기술을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기술이 금융의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보완·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샌드박스 도입 이후 2019년말까지 77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진행하다보면 이용자의 피해라든가 금융시장의 불안에 야기하는 사건, 사고들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성공적인 테스트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감독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고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장경운 | 핀테크혁신심장 | 금융감독원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혁신적 서비스의 조기 출현을 위해 예비사업자의 신청서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청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 예를 들어 지정대리인 제도라든가, 위탁테스트 제도,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기관이 본질적 업무의 일부를 핀테크 기업에게 위탁하여 서로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말까지 총 27건을 지정했다. 위탁테스트 제도는 지정대리인과 반대로 핀테크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타당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규제신속확인 제도는 신기술 적용이 기존 금융규제에 지속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테스트 실시 단계에서는 금융규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샌드박스 참여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경과보고서 등을 통한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및 제재의 경우에는 자율 기반의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과 정책적 안내를 지향하고 있다.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정미한 법규 위반은 사업자가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 다수 소비자의 피해 등 중대 위반행위가 없는 한 검사 및 제재를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며 현장점검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널리 알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방침이다.

해외의 샌드박스 운영현황을 참고로 소개한다. 대표적인 샌드박스 운영국가인 영국은 2015년부터, 호주, 싱가포르, 홍콩은 2016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샌드박스를 먼저 도입한 영국, 홍콩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 규제 샌드박스의 차이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테스트 기간이 다른 나라는 6개월 등 단기간에 비해 한국은 최대 4년으로써, 장기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샌드박스가 혁신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규개정 등을 통해 기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도 핵심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나라는 인허가 특례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사업기회를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반해, 한국은 이러한 인허가 특례와 함께 일반 규제에 대한 특례도 부여해서 기존 규제를 임시로 완화해주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또한 규제 혁신을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셋째, 다른 나라는 주로 금융업에 대해서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데 비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현재 영국(124건), 홍콩(74건)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샌드박스 지정 건수(77건)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시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개별 국가 단위의 샌드박스를 넘어 글로벌 단위의 샌드박스에 대한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FCA에서 추진중인 글로벌 샌드박스(2019년 1월 도입)에 우리도 참여하거나 필요시 아시아권 테스트베드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과연 한국 샌드박스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 것인지 고민이 된다. 샌드박스를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분산원장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중 산업간 연계된 샌드박스, 예를 들어 수소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테스트 등을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P2P대출 감독

핀테크혁신실의 또 다른 주요업무 중 하나인 P2P대출 플랫폼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2P대출 플랫폼은 핀테크란 말이 언급되기 시작한 초기에 혁신의 대표적인 예로 꼽혔으며, 몇몇 기업은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차입비용 절감과 포용적 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이자 새로운 투자처로 상당히 각광받았으나, 최근 높은 연체율과 부동산 불림현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해왔으나 이용자 보호와 영업행위 규율의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없었고, 이에 따라

P2P대출 법제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P2P대출 법안, 정확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지난 10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금년 하반기(2020년 8월 27일)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우선 진입 규제로서, P2P를 별도의 금융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소자본금 요건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등록요건을 정하고 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투자금과 상환금을 P2P업체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대출채권을 P2P업체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자금을 두텁게 보호하였다. 영업행위 규제로서는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 이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도록 하였으며, 대주주 대출이나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하였다. 그동안 P2P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 투자자나 차입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법제화로 규제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대응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대한 감독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블록체인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암호자산과 블록체인을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을 분리하여,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고 육성하되,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기본 방침이다. 기술 중립성의 원칙 하에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적용을 지켜볼 것이며, 새로운 기술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의 디지털 자산거래, 개인간 주식 대거래, 디지털 신원인증 등 다수의 블록체인 기반 혁신서비스가 이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중인데, 혁신적이고 잠재력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과 함께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만간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이 개정되어 암호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확인 의무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 암호자산 관련 산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저금결제 및 증권거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시세조종 및 허위광고 금지, 이용자 재산 보호 등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증권형 ICO에 대한 규제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핀테크 현장자문단 운영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운영중인 자문서비스도 소개하고 싶다. 앞서 말씀드린 규제 샌드박스를 인종의 인프라 구축이라 한다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금융규제 준수와 혁신적 아이디어의 건전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5월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복잡한 금융규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명을 배치하였으며, 지금까지 150여 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했고, 지금도 꾸준히 자문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핀테크 기업에게 최대한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향후 핀테크 감독 과제

핀테크의 부상은 감독당국에게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도 던져주고 있다. 우선 핀테크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아직 많다. P2P대출 플랫폼의 경우 이제 갓 법제화가 되었고, 암호자산 취급업소의 경우 여전히 감독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용자의 피해나 사고에 적극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인해 어느 기관이 감독해야 하는지 감독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당국, 그리고 정보보호당국 간의 공조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화에 적용하지 못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의 핀테크 소외현상과 인력 절감형 자동화 기술 적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핀테크 발전에 따라 무각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형 핀테크 기업



# 기고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장경운 | 핀테크혁신심장 | 금융감독원

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의 내부통제와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Cyber Risk)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부실회사 전염 리스크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4. 핀테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향후 전망

핀테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의 ICT 발전을 토대로 금융서비스 상품 개발, 마케팅 및 유통,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 전반에 이르는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인수·합병과 수평적 서비스 영역 확대로 점차 대형 플랫폼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리브라) 발행 시도,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중앙은행도 핀테크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는 기존의 금융기관 외에 핀테크 스타트업, 중간 규모 플랫폼 사업자, 빅테크 등이 경쟁과 협업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핀테크 산업의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을 와해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분해(Unbundling)되고 다시 합쳐지는 과정(Rebundling)에서 대형 금융플랫폼에 의한 시장지배력 확대, 데이터 독점, 고용 불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한 감독당국의 규제 혁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 산업은 아직 속도지침이 아니고 보듬어야 할 분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장만 지향하거나 혁신을 과신하게 되면 살피야 할 것을 못 살피고 지나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핀테크 원천기술이 발전하면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 혁신에 따라 기존의 산업구조나 규제 체계가 와해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핀테크 혁신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감독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달려온 지금, 바람직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연 우리 모두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바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한다.

### 발전 방향

**첫 번째로, 정부, 감독당국, 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법·제도와 감독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에,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질서와 관행에 맞추어진 금융 규제를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혁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규제 완화 전에 대해서는 신속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특별 인허가 제도 도입, 스케일업 투자펀드 활성화와 해외진출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검사·체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핀테크 기업의 규제준수 역량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및 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핀테크 혁신을 지향하고자 한다.** 기술 발전과 이익 추구가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핀테크가 한 때의 유행이 아닌,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향점을 사람에 두고 기존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의 편익,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사업 파트너와의 협업을 중시함으로써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금융혁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영업 확대나 인원 감축 목적으로만 핀테크 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디지털 인제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비합리적인 판매 목표와 KPI를 통해 지나친 단기성과를 추진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구조를 유지하려는 행태를 개선하고, 아웃소싱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범규준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규제준수 업무에 접목하는 레그테크(RegTech) 도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해 파생상품과 은행간 도매자금시장 등에서 이루어진 부분별한 혁신이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경험했던 적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과 정부 부문에 누적된 과잉 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여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새로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오히려 저성장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자원 투입과 공정한 성과 배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지 기술 혁신이 일으킬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해체나 새로운 경제성장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의 경우 고령층 등이 모바일 뱅킹 등의 혁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나,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노동자를 과편화시키는 등의 공동이용경제(Sharing Economy)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경쟁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스스로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 하고 금융보안(Cyber Security),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핀테크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임팩트 핀테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체 에너지 발전사업 같은 경우 사업예정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P2P대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끔 한다면 보다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좋은 투자(Good Investment)', '좋은 소비(Good Consumption)'를 유도하는 기업 평가나 기부 문화 개선을 이끌어내는 블록체인 플랫폼 등도 지속가능한 핀테크의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사회혁신형 P2P나 좋은 투자·소비를 유도하는 기업 평가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도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을 중시하는 지속가능금융(ESG),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포용적 금융혁신, 공동 의사결정과 이익 배분을 중시하는 커먼스(Commons) 금융플랫폼 사업 등 지속가능한 핀테크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맺음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미튼 교수는 최근 국내 대학교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성공적인 핀테크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참여자들의 상호 신뢰를 꼽았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더 나아가 한국과 해외 핀테크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고, 금융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공 기반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앞으로 정부와 시장이 함께 힘을 모으는 금융혁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금융혁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금융혁신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발행일 | 2020년 2월 28일

발행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층

전화 | 02-3705-6279

팩스 | 02-3705-6288

홈페이지 | [www.cifc.or.kr](http://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